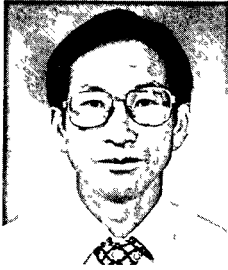


續·本草問答(譯)

裴 馨 道



▶ **문]** 藥性は寒熱溫平으로 모두 表現되는데 앞에서 五行五臟의 分別과 寒熱溫平의 性質이 이미 자세히 설명되어 덧붙일 것은 없으나 藥性이 上下表裡로 나누어지고 升降浮沈의 區別도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

▶ **답]** 그것은 天地의 陰陽에 그 根本을 두고 있다 陽에 根本을 둔 것은 氣로써 爲主하여 上行外達하므로 升하고 氣는 더 오르므로 上焦로 가서 發表하고 陰에 根本을 둔 것은 味로써 爲主하여 內行下達하므로 降하여 氣가 가라앉으며 속으로 들어가 下焦에 到達하게 된다. 氣는 하늘에 根本을 두며 味는 땅에서 이루어 지는데 內經에서는 하늘은 五氣로써 사람을 기르며 땅을 五味로써 사람을 먹여 살리는데, 본디 하늘은 上을 말하고 땅은 下를 말하여 升降浮沈의 理致를 알려 주는 것이다

▶ **문]** 薄荷 辛荳 麻黃 桂枝 生薑 葱白 羌活 獨活 葛根 柴胡 白頭翁 升麻 紫蘇 荊芥 白芷 爐甘石 海石 菊花 連交 銀花 蒼耳子 青蒿 蔓荊子 이런 것들은 모두 升浮하는 藥인데 그 쓰임이 각각 다르니 어찌된 것일까

▶ **답]** 이것들은 氣分藥으로 形象과 味로써 상세히 구별지어야 한다 薄荷와 辛荳는 辛味로 동일하고 氣도 둘다 輕淸하나 形象이 각기 다르니 薄荷는 細草로서 叢生하여 줄기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四肢로 퍼져 나가고 또한 巔頂으로 升散하므로 그 氣는 輕揚하는 것이다. 辛荳는 나무 끝에 달려서 꽃가지 끝이 叢生하여 위로 향하고 味는 辛하고 氣는 輕揚하므로 순전히 上達을 爲主하여 腦와 鼻孔의 風寒을 發散한다.

麻黃은 비록 줄기 하나가 쪽 곧게 자라나 뿌리에서 많이 모여 나므로 薄荷의 叢生과 같은 의미가 있어 上升하고 外散한다. 薄荷는 하늘의 氣를 얻어 輕揚하고 辛味를 가지니 이는 땅의 味를 함께 가지고 있어 血分에도 들어가는 것이다. 麻黃같은 경우

에는 줄기 속이 비어 있고 위로 곧게 자라며 強烈한 맛이 없어 하늘의 輕揚의 氣만 순수하게 받았으므로 순전히 氣分만을 爲主하는데 陰에서 陽으로 나와 全身의 上下 皮毛에 透達하는 것이다 桂枝와 麻黃이 升散하는 藥으로서는 同一하나 氣味가 각각 달라서 가지의 성질은 사방으로 퍼지고 氣 또한 輕揚한 것은 桂가 辛味兼하고 있으므로 하여 地의 味를 획득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血分에도 入하여 血脈肌肉 中에 있는 風寒을 發散시키게 된다 仲景의 麻黃湯과 桂枝湯을 보면 麻黃湯은 發皮毛하고 桂枝湯은 鮮肌肉하니 血分과 氣分の 藥이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生薑은 그 氣가 升散하고 또 降氣止嘔할 수 있는 藥인데 이는 그 味가 더욱 勝하고 馱속 뿌리로 연결되어 地火의 味를 兼하고 모든 것이 뿌리로 모여 귀속되므로 降氣止嘔하며, 비록 升散하는 能力이 있으나 麻黃이나 桂枝가 순전히 升散하는 能力만 있는 것과는 달라서 小柴胡湯이나 二陳湯에 모두 止嘔하는 用途로 쓰이는 것이다. 葱白의 뿌리 역시 馱속에서 生長하나 莖 속이 비어있고 줄기가 곧아 氣가 味보다 더 勝하므로 땅 속에 있는 黃泉의 氣를 끌고 苗葉에 上達하므로 功效는 순전히 升散을 爲主하여 肺竅를 通하게 하니 仲景의 白通湯이 陽氣가 위로 通하게 하는데 사용한다 이것은 땅 속의 黃泉之氣를 取하여 위에 있는 苗葉에 升達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水中의 陽을 太陽經에 通하게 하여 巔頂에 모이게 하는 것이다

羌活과 獨活 葛根은 모두 뿌리가 깊이 들어가므로 땅 속의 水氣를 地上의 苗葉에 까지 올라오게 하는데 줄기가 아주 길어서 人身의 太陽經을 닮고 있으므로 水에 屬하는 膀胱에서 經脈에 陽氣를 到達시키고 몸 전체를 들고 있으므로 두가지가 모두 太陽經에 入한다 (여기서 두가지라 함은 羌活과 獨活을 하나로 하고 葛根과 두가지라고 하고 있으며 葛根의 歸經도 대체로 脾經과 胃經의 두가지만 말한 곳이 많으나 膀胱經을 같이 들고 있는 문헌도 있다) 羌活과 獨活은 氣味가 더욱 辛烈하므로 發散하면서도 血을 傷하게 하나 葛根은 氣味가 비교적 平하여 發散하는 性質이 가볍고 그래서 血을 傷하지 않으며 뿌리가 깊어 水氣를 끌고 苗葉에까지 도달시킬 수가 있으니 津液을 끌어 올릴 수도 있다.

柴胡와 白頭翁은 두가지가 모두 줄기 하나가 꼭 곧게 자라고 꽃이 清香하므로 鬱結을 升散시킬 수 있는데 白頭翁이 下痢後重한 것을 治療하는 것은 鬱結한 것을 升散시키기 때문이다 柴胡가 胸中逆滿을 治療하는 것은 太陽의 氣가 가슴속으로 들어 가면 밖으로 빠져 나올 수 없는데 柴胡가 이것을 뚫어 通하게 할 수 있으니 이것 또

■ 續 本草問答(譯)

한 鬱結을 升散시킨다는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가지가 다른 것은 白頭翁은 바람이 없으면 흔들거리고 바람이 불면 움직이지 않으며 하얀색을 가진 毛髮이 있는데 대개 毛髮은 風氣가 있고 또 가을에 採取하므로 金과 木의 交合하는 氣를 가지고 있어서 風을 잠재울 수가 있는 것이니 肺金의 힘을 가지고 風木의 氣에 作用하므로 木이 土를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後重을 昇擧시키는 功이 있고 痢疾을 멈추게 한다.

柴胡는 푸른색으로 줄기 하나가 곧바로 올라가며 봄에 성장하고 여름에 채취하므로 水木의 氣味를 가지고 있어 中央土의 氣를 따라서 木火의 氣에 이르러 肺를 劫迫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柴胡가 가슴에 맺힌 것을 뚫어주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仲景先生이 柴胡로써 少陽症을 치료하니 그 생각은 정말로 藥의 眞髓를 꿰뚫었다고 할 수 있다. 少陽은 水中의 陽으로 三焦에서 發生하여 腠理에 行하고 膽中에 寄屬하여 음식을 소화시킨다. 三焦의 膜綱을 通暢시키고 肝膽의 木火를 淸和하니 水中의 陽은 안으로부터 시작하여 밖으로 까지 작용하는 것이다 柴胡는 줄기 속이 비어있는데 하얀 막이 있어 氣를 通하게 한다 이것은 사람 몸 속에 있는 三焦의 膜綱을 닮았는데 膜綱에는 紋理가 있고 아울러 肌膚와 筋骨을 相湊(서로 이어 주는 것)하게 하여 줌으로 腠理라고 부른다. 少陽의 木火가 腠理에 鬱滯하여 通하지 못하므로 寒熱이 생기는데 柴胡가 이것을 通하게 할 수 있다. 柴胡의 줄기 속이 성글게 비어 있는 것이 腠理를 닮아서 陽氣를 通達시키는 것이다 또한 味가 淸苦하여 三焦의 火에까지 작용이 미치는데, 그러므로 柴胡가 膽을 치료하는 것은 그 쓴맛의 작용인 것이다 三焦의 病을 치료하는 것은 柴胡가 줄기 속이 성글게 비어 있으면서 똑바로 자라기 때문이며, 太陽病을 치료하는 것은 三焦를 通하게 하여 그 氣가 거기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니 이것은 借治요 正治가 아니다 또 柴胡는 모름지기 줄기가 곧고 色이 푸르며 잎은 사방으로 나고 댓잎같으면서 가늘고 작은 黃色꽃이 피는 것이라야 眞品이니 仲景先生이 使用했던 것이다. 요사이 辛溫發表하는 草根이 있는데 이것은 결코 柴胡의 本性이 아니니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 四川의 梓潼에서 나는 柴胡는 가격이 아주 싸지만 모든 곳에서 通用하는 것이 아니며 藥書에 軟柴胡니 紅柴胡니 銀柴胡니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가짜로서 眞品使用에 混亂을 가져와서 仲景先生이 썼던 藥效를 얻지 못하니 너무도 애석하다

升麻는 味甘하여 脾胃의 氣를 昇擧시킬 수 있으니 뿌리 속에 비어있는 구멍이 있

어 水氣를 地上部에까지 끌어 올리므로 升擧를 爲主하는데 사방으로 퍼지는 성질은 없으니 뿌리가 오로지 升擧를 爲主하는 것이다 柴胡가 지상의 싹과 잎에까지 이어져 發散의 성질이 있는 것과는 다르다 紫蘇가 荊芥와 대략 近似하나 紫蘇는 색이 붉어 血分에 入하며 枝葉이 사방으로 퍼져서 서로 떨어져 있으니 發散의 성질이 많고 升擧의 성질은 적다.

白芷는 辛香하고 색깔이 희니 肺와 陽明經에 入한다. 뿌리의 성질이 또한 升擧를 爲主하므로 肺와 陽明의 風寒을 升散한다 獨活을 보면 색깔이 黑色이므로 太陽과 少陰에 入하고 白芷는 白色이므로 肺와 陽明에 入하니 이또한 金과 水가 質이 다르므로 각기 象徵하는 것이 같은 곳으로 歸入하여 升散하는 성질은 같으나 主治는 다르다. 金銀花 連交 甘菊이 味는 淸하고 質은 輕하므로 淸氣를 끌어 올리는 능력이 있어 上焦頭目的 熱을 맑게 하나 辛散하는 氣가 없으므로 發散을 爲主하지 못한다. 靑蒿와 蒼耳가 모두 辛散하지는 않으나 發散을 爲主하는 것은 그 形象과 氣의 이론에 있다. 靑蒿는 枝葉이 사방으로 벌려지고 味가 苦味이므로 火를 홀출 수 있고 蒼耳는 質이 가볍고 가시가 있으니 風을 發散할 수 있다. 대개 까스라기나 가시 또는 털이 있는 것은 모두가 風氣와 感應하므로 주로 風을 홀어놓는 작용을 한다. 蔓荊子는 氣가 猛烈하고 質이 가벼우므로 頭目的 風을 發散시키는 것을 主로 한다. 爐甘石과 海石은 모두 質이 가벼우므로 비록 돌로서 물속에 가라앉는 것이 일반이나 그런 기운이 있는 가운데에도 떠오르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성질이 돌로서 表에 작용하지도 못하고 머리의 정수리로 올라가지도 못하여 단지 肺와 胃의 痰火가 結滯하여 있는 것을 消散시키는 능력으로 끝난다 藥의 浮沈을 가려서 治病하는데에도 浮沈을 구별하니 表裡升降의 이치가 틀리는 것이 없다.

▶ 문] 本草書에 上昇하는 성질의 藥은 소금으로 法製하면 下降하게 되고, 下降하는 성질의 藥은 술로써 法製하면 上昇하게 된다고 하는데 술 또한 穀物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왜 그 성질이 上昇한다고만 하는가.

▷ 답] 氣는 하늘에 根本을 두고 있으므로 上昇을 주로 하는데 술은 氣가 化하여 만들어진 物品이 확실하니 上昇하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게 된다 蒸溜酒를 만드는 것을 보면 밀술을 끓여 筒을 사용하여 蒸氣를 모아서 냉각기에 들어가면 變化하여 술이 된다. 일반적으로 술은 모두가 上昇의 기운을 가진 액체이다. 水中의 陽은 근본

이 상승하는 것인데 서양인은 액체속에서 水酸氣를 분리해 내는데 이것은 상승하는 힘이 있고 또한 불이 붙기도 한다. 陽氣가 쌓이면 上昇하는데 水는 坎卦가 되고 가운데 兌가 陽이므로 물속에서 氣가 나와 올라가게 된다 공기중의 淸陽한 氣는 모두가 물속의 陽氣이니 충분히 氣化된 것이다 燒酒는 누룩에서 陽氣가 피어나온 것이니 끓이면 陰이 변하여 陽이 되고 그 氣가 끓어올라 밖으로 빠져나와 술이 되니 이것은 순전히 上昇한 陽氣인 것이다 그러므로 上昇을 爲主로 한다 또 쌀술을 빚을 때는 누룩을 찹쌀밥에 재워두면 열이 나면서 발효되어 술이되고 밥은 찌꺼기가 된다 이리하여 술이 氣를 따라 변화한 것이므로 陽에 屬하고 또한 上昇을 爲主하는 것이다. 그러나 米酒와 白乾酒는 다르니 白乾酒는 筒으로 集氣하여 나온 것으로 순수한 淸氣이며, 米酒는 항아리 안에서 발효시킨 것으로 흐린 액체이다 그러므로 米酒는 맛이 더욱 重厚하여 血分에 入하며 또한 留滯하는 성질이 있어 痰濕을 만들 수 있다 白乾酒는 氣가 더욱 厚하여 오로지 氣分에 들어 가는데 성질이 留滯하지 않으므로 痰濕을 생기게 하지 않는다. 白乾酒와 米酒가 昇性은 동일하나 하나는 맑고 하나는濁하니 따라서 浮沈이 다르므로 藥理를 따질 때에는 세밀히 해야 한다 그렇다면 飴糖과 米酒는 모두 누룩(原本에는 麴麩이라고 되어 있으나 麩이 誤字가 아닌지 의심스럽다)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인데 왜 飴糖은 甘潤하고 上昇하는 性質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것은 이렇다 술은 서서히 발효시키므로 인하여 자연히 흘러나온 氣이므로 氣化가 많아서 氣가 盛하고 上昇하게 되며 飴糖은 끓여서 氣를 억지로 나오게 하였으므로 氣化가 적어서 味가 盛하고 上昇하는 성질이 없게 된다 대개 술은 하늘의 氣를 듬뿍 받아서 上昇하게 되고 飴糖은 땅의 味를 많이 받아서 補益하는 것이다. 仲景先生의 建中湯에 飴糖을 쓰는 것은 正히 그 中宮을 補하는 것을 취한 것이다 다시말하면 白乾酒는 상승하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飴糖은 제자리를 지키고 상승하지 않으며 米酒는 能昇能守하니 그것이 나누어지는 것은 氣味の 厚薄에 있다 그러므로 藥性を 辨別할 때에는 그 이치를 상세히 연구해야 한다.

▶ 問] 芒硝 大黃 巴豆 葶藶 杏仁 枳殼 厚朴 牛膝 苡仁 沈香 降香 鐵落 赭石 檳榔 陳皮 등 藥은 모두 沈降을 主로 하는데 어떤 것은 降而收하고 혹은 收而散하며 혹은 降而攻破하며 또는 降而滲利하며 어떤 것은 血分에 入하고 어떤 것은 氣分에 入하니 상세한 설명을 바란다.

▷ 답] 무릇 上昇하는 것은 모두가 하늘의 氣를 얻은 것이며 沈降하는 것은 땅의 味를 얻은 것이므로 味가 重厚한 것은 沈降이 빠르고 味가 輕薄한 것은 沈降이 완만 하니 形質까지 합하여 논하면 輕重이 분별되는 것이다 芒硝는 본디 水氣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은 水氣 속에 陰氣가 凝結된 性質이 있고 鹹味는 型實한 것을 유연하게 할 수 있으므로 氣分の 熱을 내리게 하므로써 水氣중에 陰味를 가지고 陽氣를 갖지 못했으므로 沈降하되 上昇하지는 못한다 또 水는 終局에는 氣분에 屬하므로 芒硝가 水의 味로 凝結되어 순수한 水의 陰性을 가져서 氣分の 熱을 淸降시키니 大黃이 血分에 入하는 것과는 결국 다른 것이다. 大黃은 味苦大寒하며 地火의 陰味를 가지면서 색깔이 黃色이므로 또한 火가 흡수되어야 할 곳이 있으므로 (黃色은 屬土氣이므로 火生土하여 火歸土한다는 뜻으로 생각됨) 火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로지 血分の 凝結한 것을 瀉下시킨다 味가 厚하고 猛烈한 氣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味는 이미 下降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다 氣가 또 下降을 도우니 신속하게 瀉下될 수 있는 것이다 寒性을 가진 것은 모두 밑으로 끌어 내리는 作用이 있는데 白芍이나 射干같은 것이 味가 降利性이 있는 것은 맛이 쓰기 때문인데 大黃이 下降性이 있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다 大黃은 苦性이 많고 白芍은 苦味가 좀 적어서 白芍은 降利性이 微弱하나 大黃은 그 힘이 큰 것이다 그렇다면 黃連은 苦味인데도 머물러 走行하지 아니하는데 大黃은 유독 攻利의 성질이 있음은 왜일까 그렇다. 이것들이 동일한 苦味를 가지고 있으나 黃連은 質이 乾枯하여 潤澤하지 못하고 大黃은 그 質이 汁液이 있어 滑潤하므로 滑利를 爲主하며 또한 黃連은 苦味가 순수하고 雄烈한 氣가 없으므로 머물러 走行하지 않으며 大黃도 苦味가 순수하나 雄烈한 氣가 있어 그 雄烈한 氣가 苦味를 運行하게 하므로 머무르지 못하고 走行하는 것이 黃連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면 大黃은 性味가 苦寒하니 당연히 下降한다고 하나 巴豆는 性質이 辛熱하니 마땅히 大黃과는 반대이어야 하는데도 攻下를 爲主하여 大黃과 비교해도 더욱 攻下가 신속하니 이것 또한 어떻게 된 것일까 이 또한 기름의 潤滑性 때문에 下降을 爲主하는데 巴豆가 降下의 能力이 있는 것은 앞에 말한대로 오직 油滑性 때문이지 辛熱의 所致는 아니다. 麻油나 當歸를 먹으면 大便이 부드러워지고 巴豆나 訶麻자는 기름을 포함하여 滑利하므로 大便을 瀉下시킨다. 그러나 麻油는 熱하지 않으므로 進行이 緩慢하고 辛味가 아니므로 氣運이 신속하지 않아서 결국 大便을 瀉下시킴이 緩慢하며, 訶麻자는 味辛氣溫하여 그 溫性이 訶麻자의 油滑한 성질에

■ 續 本草問答(譯)

작용하여 그 진행이 신속한 것이다 巴豆의 기름은 麻油나 피마자와 滑性은 동일하나 味가 大辛하여 猛烈하고 氣가 大熱하면 성급하게 되므로 성질이 그대로 滑利에 작용하여 劫迫하므로 餘有를 남기지 않는다

麻仁도 역시 油滑하나 辛烈性이 아니므로 潤降하되 速下하지는 않는 것이다. 葶藶子도 또한 含油하여 滑利의 능력이 있는데 거기다 辛味까지 가지고 있어 巴豆가 味辛하고 油性을 가진 것과 비슷하고 또 苦味도 가지고 있는데 이 또한 大黃이 味苦하고 滑潤性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葶藶子는 巴豆와 大黃 두가지의 성질을 포함하므로 肺中の 痰飲膿血을 크게 훑어낼 수 있어서 降下시키는 성질이 아주 신속하니 大黃과 巴豆의 성질을 겸하고 있어 아주 猛烈한 藥인 것이다. 그런데 이 峻烈한 氣가 경우에 따라 眞氣를 해할 우려가 있어 仲景先生은 반드시 大棗를 配伍하여 補性を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杏仁도 마찬가지로 油質을 가지고 있으나 苦味를 가지면서도 辛烈한 氣運이 없으므로 降下하되 急迫하지 않은 것이다.

▶ 問) 降下の 氣를 가진 것으로 杏仁과 葶藶은 왜 肺로 歸入하고 枳殼과 厚朴은 脾胃로 歸入하는 것일까.

▷ 答) 葶藶과 杏仁은 白色으로 金에 속하고 枳殼과 厚朴은 두가지 모두 木의 성질을 가져서 木은 能히 疏土하므로(木剋土) 脾胃에 歸入하는데 枳殼은 木氣가 實하고 味는 厚朴에 비하여 좀 弱하므로 胃氣를 다스리고 厚朴은 본디 質으로서 味가 枳殼에 비하여 强하므로 脾를 다스리니 仲景先生의 用藥을 보면 枳殼은 心下滿을 치료하는데 쓰고 厚朴은 腹痛을 치료하는데 썼으니 枳殼과 厚朴의 輕重이 分別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陳皮도 마찬가지로 木實한데 胃를 다스리면서도 脾도 다스리고 아울러 肺도 다스릴 수 있음은 어떻게 된 것일까. 陳皮는 辛香한 氣味를 겸하고 있어서 肺로 올라갈 수 있고 枳殼은 辛香하지 않으므로 肺로 가지 않고 厚朴은 味가 辛하나 沈降의 氣運이 크므로 肺로는 가지 않으나 肺氣가 大腸과 통하므로 厚朴이 大腸의 氣를 行하게 하여 肺氣가 泄氣되는 것이다. 그래서 仲景先生의 桂枝加厚朴杏子湯이 喘病을 다스리는 까닭인 것이다 또 藥을 사용함에 있어 그 功效가 확연히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枳殼 橘皮 厚朴이 가끔 그 쓰임이 互換될 때도 있는데 醫員이 그 이치를 아는 경우가 드물다. 檳榔은 나무의 種子로서 沈降하는 성질이 많아 小腹疝氣를 다스린다. 그러나 그 沈降의 성질이 上으로부터 下에 이르므로 檳榔은 또한

胸膈을 通利하는 효능을 겸하고 또한 그 性味が 極烈하지 않으므로 沈降하는 성질 또한 완만하다. 沈香木은 물 속에 가라앉을 수 있고 맛 또한 苦味로 沈降성이 있으며 香이 있어 氣를 行하게 하므로 성질이 降氣의 能力을 가지고 있다. 茄楠香은 味甘하여 沈香과는 性質이 달라서 茄楠의 氣는 昇散이 能하고 沈香은 단지 下降을 爲主할 뿐이다 茄楠을 복용하면 트림이 나오나 沈香을 복용하면 방귀가 나오니 甘味와 苦味の 昇降이 다름을 알 수 있다. 降香은 味苦하고 色紅하니 血中の 氣를 沈降시키고 吐血을 멈추게 하고 牛膝의 下降性은 그 形象과 性味로 治病의 本分을 삼으니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가고 味苦하니 水火를 끌고 下行하는 효능이 있다. 鐵落의 沈降性은 金이 木을 平定하는 것과 같이 무거운 것으로 浮怯함을 鎮定시킨다. 그러므로 驚悸를 다스리고 癲狂을 낮게 한다 赭石도 역시 重鎮하고 色이 붉어서 血分에 入하므로 일명 血師라 하는데 降血하는 능력이 있다. 血은 氣가 머무는 住宅이니 旋覆大赭石湯은 噫氣를 멈추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行血하여 그 안에 있는 氣를 下降시키는 것이다. 대개 下降하면서 가라앉는 것은 반드시 맛은 쓰고 質은 무거운 것이며 下降하면서 發散하는 것은 반드시 맛이 맵고 香氣가 있으며 下의 清竅에 行하여 利小便이 能하다 下降하면서 滲利하는 것은 반드시 맛이 담백하고 氣가 薄한 것이니 苡仁 澤瀉 車前子 茯苓 등은 모두가 味淡氣薄하여 陽中の 陰에 속하니 上의 清竅에 行하지 아니하고 下降하면서 攻破하는 것은 반드시 味厚하고 氣烈하여 功效가 破血을 겸하니 積塊를 攻破할 수 있는 것이다 대개 머물러 움직임이 없으면 쌓여서 痰水가 되고 단단한 덩어리로 되지는 않는데 대개 단단한 덩어리는 나뭇피가 混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血만 있고 氣가 없이 모이면 死血이 되나 단단한 덩어리가 되지 않는다 血에 氣가 곁들여야 凝集되고 血이 氣와 합해져야 聚合되므로 그 다음에 凝結하여 堅積이 되는 것이다. 三稜은 血中の 氣를 破散시키고 莪朮은 氣中の 血을 破碎하여 이 두가지가 모두 破積할 수 있는데 三稜은 味苦하고 辛味가 없으므로 破血하는 힘이 많고 散氣하는 힘이 작으며 莪朮은 辛味를 겸하므로 行氣하여 破血하니 氣血에 모두 작용하여 積과 聚가 합하여진데에 더욱 적당하므로 여러 方文에 莪朮이 많이 쓰인다 薑黃은 氣味が 모두 厚하여 行氣도 하고 行血도 한다. 鬱金은 薑黃의 子인데 氣는 薄하고 味는 勝하여 行氣보다 行血하는 功效가 더 크다 그렇다면 무릇 下降의 성질이 있는 藥은 모두 沈降하여 中下焦에 入하는데 上焦의 逆氣를 어떻게 降下시킬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그 해답은 이렇다 降藥이 비록 沈降한다고는 하나 上焦가 없

■ 續本草問答(譯)

이 下焦가 있을 수 없으므로 赭石이 上焦에서 밑으로 내려눌러 鎮壓하는 것이며 檳榔은 능히 利胸膈의 效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大抵 氣性이 重하고 신속한 것은 下焦에 直達하여 上焦를 通利하는 功能을 겸하지 못하며 氣味가 輕하고 완만한 것은 모두 上焦를 降利할 수 있으니 葶藶은 瀉肺氣하고 杏仁은 利肺氣하며 射干은 味가 微苦하여 喉中の 痰을 通利시키고 厚朴花는 性이 輕薄하여 膈中の 上氣를 降利시키고 川貝母는 色白하고 性平하므로 胸膈을 이롭게 하여 肺中の 痰氣를 삭인다 旋覆花는 味鹹하고 質輕하여 潤肺降痰하며 陳皮의 氣味는 不輕不重하므로 上焦의 氣를 내리고 中焦의 氣도 내린다 木香은 氣浮味沈하여 上中下 三焦를 모두 다스리며, 그 외에 重性을 가진 橘核 山楂核 荔枝核은 모두가 오로지 下焦의 氣를 다스리고 性質이 신속한 大黃 巴豆 牛膝같은 것은 下焦로 直走한다 동일한 行氣之劑라도 그 輕重浮沈에 分別이 있으니 用藥하는데 適宜하게 藥령을 얻으면 治病에 잘못이 없을 것이다

▶ 問) 일반적으로 식물체의 藥用部位에 따라 性質이 다른데 뿌리는 昇性을 가진 것이 많고 열매는 降性을 가진 것이 많고 줄기나 몸통은 和性을 가진 것이 많으며 잔가지나 잎은 散性이 많은데 왜 그런지 알고 싶다.

▷ 答) 뿌리는 위를 향하여 싹을 내므로 昇하며 씨는 밑으로 떨어지므로 降하며 몸통줄기는 植物體의 가운데에 위치하므로 昇하기도 하고 降할 수도 있으니 和하며 가지나 잎은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사방으로 뻗어 나가므로 散하는 것이다. 그러나 藥草마다 사용부위가 뿌리가 중시될 때도 있고 열매나 줄기나 잎이 각각 그 성질이 중요시되는데 따라 藥의 특징이 정해지는 것이니 너무 광범위하게 擴大하여 생각할 필요가 없다

▶ 問) 根實莖葉의 藥性 부위의 명칭에 따라 特長이 있는데 뿌리를 먼저 거론하여 오로지 昇性만을 가진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명시해주기 바란다

▷ 答) 뿌리는 昇性이 많은데 또한 그것의 形色氣味를 보아야 한다. 오직 뿌리를 중시하는 경우에는 단지 뿌리만을 藥用으로 쓰는 것이다 升麻의 경우에 뿌리가 地上部보다 커서 뿌리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 많으므로 뿌리만을 取하여 쓰는데 뿌리 속에 공간이 많아서 水氣를 빨아올려 위에 있는 苗葉의 속에 이르게 하므로 上昇을

위주하며 氣味가 辛甘하여 이또한 上昇의 氣味에 해당하며 그 形體와 함께 종합하여 성질을 말하면 모두 昇을 위주하고 그리하여 이름도 升麻라 하니 升發上行하는 전문적인 藥이 되는 것이다. 또한 葛根의 경우에는 뿌리가 식물 가운데에서도 아주 깊이 들어가는데 土中の 水氣를 빨아올려 덩굴에까지 이르게 하므로 津液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 또한 太陽經과 陽明經의 邪氣를 升散할 수 있는데 이것은 土中の 水氣가 올라와 덩굴에까지 도달한다는 義가 取해진 것이다. 葛根의 덩굴이 아주 길고 太陽經의 經脈도 아주 긴데 葛根이 땅속의 水氣를 끌어서 덩굴에 도달하게 하는 것과 膀胱水中의 陽氣를 끌어서 太陽의 經脈에 도달하게 하는 이치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葛根이 太陽經의 痙症을 치료할 수 있으니 太陽經을 도와서 膀胱으로부터 水中的 陽氣를 外部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다. 뿌리가 純白으로 金에 속하고 또한 水氣를 머금고 上昇하니 이것은 金水の 相生을 말하는 藥物이 되고 津氣도 끌어갈 수 있으니 陽明의 燥氣를 다스린다 그러나 葛根과 升麻는 성질이 다르니 葛根은 뿌리가 충실하여 津液을 上昇시키고 氣는 上昇시키지 않으며 升麻는 뿌리 속에 空虛하여 구멍이 있어서 行氣하므로 氣를 上昇시키고 津液을 上昇시키지 않는다 黃芪도 뿌리 속에 空虛하여 구멍이 있으나 升麻는 味가 重厚하지 못하여 上昇하되 補性이 없고 黃芪는 味가 重厚하여 上昇하면서도 補性이 있는 것이다 黃芪는 뿌리가 깊어서 심지어 여러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데 黃芪를 켤 때는 호미같은 것을 쓰지 않고 바로 뽑아 올리니 잔뿌리가 없다. 잔뿌리가 없이 쪽 곧은 것을 생각하면 直達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속이 성글어서 水氣가 流通될 수 있으니 땅 속에 있는 黃泉의 水氣를 바로 끌어 올려서 지상부에 도달되게 하니 그러므로 사람의 元氣도 끌어 올려서 上部에 充發되게 하고 外表에 도달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의 元氣는 腎에서 發生하여 膀胱의 水中으로 나온 다음 氣海의 膜綱을 돌아 上部의 胸膈에 도달하고 결국 肺에 이르러 皮毛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다 黃芪는 內部가 虛鬆하여 通達하게 하니 사람의 膜綱을 닦아서 땅밑에 있는 黃泉水氣를 끌어올려 地上의 苗葉에 침투하게 한다 그것이 사람의 元氣가 腎으로부터 肺에 도달하고 外表에 이르는 것이 상징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黃芪가 元氣를 끌어올리고 안으로부터 밀어내어 外部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內托性)

▶ 문] 앞에서 논한 升麻, 葛根, 黃芪가 모두 上升을 爲主하는데 主治가 다른 경우

도 있는 것은 어째서 인가.

▷ 답] 모두가 뿌리의 上升性이 있으나 形色氣味가 다르므로 主治가 각각 다른 것이다 升麻는 通氣空이 크고 氣味가 辛發하므로 그 성질이 순수하게 上昇하는 것이며 黃芪는 色黃하고 氣溫하며 味는 純甘하므로 上昇하면서 補性을 가지게 되고 葛根은 色白하고 味는 微苦하므로 上昇하면서 清火하되 補性은 없는 것이니 藥性을 論할 때는 자세히 辨別하여야 한다.

▶ 문] 牛膝, 葦靈仙, 茜草가 모두 뿌리인데 왜 上昇을 주로 하지않고 下降을 爲主하는 것일까.

▷ 답] 이른바 뿌리가 上昇한다고 하는 것은 그 氣味形色이 모두가 반드시 昇性이 갖추어져야 能히 昇達할 수 있는 것이다. 牛膝같은 이런 藥들은 뿌리가 堅實하고 空隙이 없어 升達할 수 있는 길이 없고 苦味를 가지고 瀉下하여 氣가 올라갈 수 없으므로 昇發의 힘이 없는 것이다. 또 그 氣味도 下降하는데 뿌리 또한 깊이 들어가서 氣가 上昇하지 못하고 뿌리로 내려가 下達하게 되는 것이다. 升麻같은 藥이 上行하는 것과 정반대가 되므로 그 理致를 가히 알 수 있는 것이다.

▶ 문] 풀이나 나무의 열매가 모두 降下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째서 인가.

▷ 답] 모든 것은 바닥을 치면 반대로 올라가는 것이며, 上昇이 極에 달하면 오히려 下降하는 법이니 풀이나 나무의 열매는 上昇의 氣가 極에 달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되돌아 下行하는 것이다 열매속의 씨(仁核)는 속으로 收斂되어 들어가 있으므로 下降하면서 거두어 들이는 성질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蒼耳子와 蔓荊子是 모두 풀의 열매인데 왜 上昇하는 것이며 花椒와 橘紅도 나무열매인데 外部發散이 가능할까. 그렇다. 열매나 씨가 收斂과 下降을 위주하는 것은 넓게 보아서 그런 것이며 성질을 論할 때는 모름지기 形色氣味와 함께 해야만 비로소 확실하게 될 것이다. 蒼耳子是 까스라기가 있고 몸체가 가볍고 質이 성글며 蔓荊子是 味辛하고 氣를 發散하므로 두가지 모두가 昇性을 가지니 열매나 종자 가운데에서도 變格에 속하는 것이다 심지어 花椒나 橘紅같은 경우에는 氣味가 辛溫하여 昇散한다 그러나 또한 降氣도 하는 것이다 이것들이 열매의 껍질이어서 昇性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椒目은 自汗을 그치게 하고 橘核은 疝氣를 치료하는 것이니 순전히 下降하는

것이며 升發하는 것은 아니니 작용들이 果實에 있어서는 대략 같은 것이다. 果實은 또 皮肉과 仁核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하니 皮肉은 겉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升散의 이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仁核은 속에 있는 것인즉 온전히 收斂과 降下를 爲主함으로써 升散의 성질이 전혀 없으니 이리하여 牽牛子, 車前子는 降利하고 荔子核, 山查核은 降散을 爲主하며 白薏仁, 西砂仁은 味가 비록 辛하나 결국은 溫中하면서 降氣하고 柏子仁, 酸棗仁은 功效가 비록 補性이 있으나 潤心의 重要的 藥으로써 降火하며, 杏仁이 降氣하는 것과 桃仁이 降血하는데까지 생각해 보면 核仁이 降下함을 뚜렷이 알 수 있는 것이다.

▶ 문] 藥에서 식물의 줄기나 몸통부분은 뿌리와 가지끝과의 사이, 즉 중간부분에 있어 升하기도 降하지 않을 부분에 위치하여 和平을 위주하는데 그렇지만 어떤 것은 昇性이 있고 어떤 것은 降性이 있는 것은 어떤 일인가

▷ 답] 이 또한 氣味の 輕重을 보아서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 약물이 되는 부분이 위아래가 만나는 곳에 있으면서 氣味が 和平하면 升하기도 降하지도 않고 和平한 성질하나만 가지게 된다. 藿香莖이나 紫蘇莖은 氣味が 和平하여 오직 和氣만을 위주하는데 藿香은 味甘하여 脾胃의 氣를 和平케하고 紫蘇는 味辛하여 肝肺의 氣를 和平케하고 升하기도 하고 降하기도 하는 것은 두가지가 모두 풀의 身莖이 되기 때문이다. 竹茹는 몸통을 두르고 있는 筋脈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므로 筋脈을 和平하게 할 수 있고 松節은 사람의 骨節같으므로 骨節을 和平하게하며 白通草(通草)는 사람의 膜油와 같으므로 膜油를 通達하게 할 수 있어서 위로는 通乳하고 아래로는 소변을 通하게 하니 이것들은 모두 莖身이 和平을 主張하여 升하기도 하고 降하기도 하니 각각 그 種類에 따른다는 뜻이 있는 것이다. 葦莖에 있어서는 가운데가 비어 있으면서 直上하고 또한 그 味가 淡하므로 氣分에 속하여 오직 上昇하는 功效가 있으므로 金匱에서는 肺속에 있는 膿을 吐出시키는데 사용했으니 直上透達하는 뜻을 그대로 취한 것이다. 荷莖은 가운데가 비어있고 氣味が 淡하며 물 밑바닥에서부터 물 밖으로 올라오므로 清陽한 氣를 昇達시킬 수 있다. 葱白은 가운데가 비어 있으면서 氣味が 峻烈하므로 上升과 發散을 겸하는 것이니 이것들이 모두 줄기이기 때문이다. 氣味が 모두 輕清하므로 모두가 上昇을 爲主하는 것이다. 이와는 좀 다르게 木通莖도 通透의 작용이 있으나 덩굴로 이루어져서 모양이 대하나가 곧게 올라가는 것과는 다를

■ 續本草問答(譯)

뿐만 아니라 味苦하여 疎泄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下降을 爲主로 하여 小便을 通利한다 蘇木은 나무의 몸체로 紅色을 포함하고 味鹹하여 몸 속에서 순환하는 피를 상징하므로 行血을 爲主한다. 秦皮는 나무껍질이다. 人身의 피부를 상징하여 味苦하고 濕熱을 내리는 성질을 겸하고 있어 仲景先生은 皮膚發黃證을 다스리는데 사용하였다 棕櫚皮는 섬유질의 생김새가 직물같아서 사람의 脈絡을 상징하고 味澁하여 능히 收斂降下하므로 吐血이나 衄血에 쓰임으로써 脈絡의 血結을 내리는 것이다. 乳香은 나무의 진으로 膿血을 상징하므로 瘡膿病等을 다스린다 杜仲의 부드러운 실같은 韌帶는 사람의 筋膜을 型象하고 紫黑色의 껍질에 싸여서 味가 純厚하므로 肝腎經에 入하여 人身의 筋骨을 強하게 한다. 이처럼 예를 들자면 한이 없으니 혹 昇하고 降하며 혹 補하고 和하는 것이 각각 氣味와 形質에 따라 세세히 나누어 지므로 用藥하는 것도 자연히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 문) 藥을 論함에 枝葉에 대해서만 말하고 꽃은 論하지 않음은 무슨 까닭인가.

▷ 답) 꽃이란 枝葉과 같은 類로서 枝葉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것이다. 枝葉이 發散을 위주하니 花의 성질도 역시 發散을 主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芙蓉花는 어찌 發散을 主로 하지 않고 收斂을 위주하며 旋覆花는 發散을 위주하지 않고 降下를 主로 하는 것일까 이 역시 그 形氣가 나타내는 바 대로 정해지는 것이다. 芙蓉은 가을의 金氣를 받아서 質 또한 딱딱하므로 收斂의 효능이 있어 箍瘡의 妙藥이 되고 旋覆花는 이슬을 머금고 피어나며 꽃이 또한 味가 微鹹하므로 潤利를 위주하고 去痰한다. 이외에 枇杷葉의 利(熱痰)性, 槐枝의 淸解하는 성질같은 것이 모두 氣味를 따라 다르게 쓰이는 것들이니 枝葉花의 본성은 아니다 그러므로 무릇 花는 頭目的 邪氣를 없애는 효능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頭目도 上部에 있고 꽃도 줄기의 끝에 있으며, 氣 또한 輕揚하여 頭目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頭目的 邪를 풀어주는 것이다 甘菊花는 氣香味平하여 頭目的 風邪를 散解시키고, 金銀花는 頭目的 陽明風熱을 없애고 辛荳蔻花는 腦와 鼻의 風寒을 없애고, 蜜蒙花는 눈속의 風邪를 없애는 것이니 종합하여 볼 때 꽃은 줄기의 윗쪽 끝에 있으므로 頭目으로 上行하는 것이다 잎이 사방으로 퍼져 있으면 四方으로 흩어지는 것을 위주하므로 온몸의 皮肉 속에 있는 風寒을 제거할 수 있다. 竹葉은 肌肉中の 熱을 淸解하는 능력이 있으니 仲景先生의 竹葉石膏湯은 竹葉의 淸散性을 그대로 취한 것이다 菊葉은 治瘡의 要藥인데 역시 邪氣

를 消散시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肌肉의 속에 있는 風邪를 제거하는 것이다 蓼薊葉도 그러한데 그러나 菊葉은 작고 끝에서 작게 갈라지므로 瘡症의 消散을 爲主하고 蓼薊葉은 크고 털이 있어 오로지 風氣를 얻어 잎에 그 性質이 몰려 있으므로 예부터 내려오는 蓼薊膏는 온몸의 風을 없애는 藥이 된다. 荷葉은 皮膚의 熱을 없애고 桃葉은 血分의 寒熱을 없애며 蘇葉은 氣分의 寒熱을 없애는 것이니 대개 草木의 잎은 風氣를 가진 것이 많아서 消散을 주로 하는 것이 많으니 이것은 바람이 불면 날려가 버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잎이 크고 까스라기가 있는 것으로 八角風이나 蒼耳葉, 巡骨風같은 것들은 모두 잎이 크고 까스라기가 있어서 모두가 마찬가지로 散風을 爲主하며, 무릇 가지는 옆으로 뻗는 경우가 많아 四散을 爲主하여 四肢에 도달하는 것이고 紫蘇의 곁가지는 脇肋의 結氣를 消散시키고 桂枝는 四肢에 運行하며, 桑枝, 桃枝, 槐枝도 모두 四肢로 走行하니 이런 것들이 모두 橫行四達의 모양을 취한 것이다.(未完)

(전남 순천시 남정동 61-2 화생당한약방 ☎ 061-745-0787)